

# 시민과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Enterprise participatory' Public Design Governance Enhancing Interaction among Citizens of Seoul

유혜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윤주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김재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Yu, HyeJin

Faculty of Craft & Design, SNU

Eune, JuHyun

Faculty of Craft & Design, SNU

Kim, Jai-Beom

Dept. of Business, SKKU

Key words: Public Design, Culture, Governance, Interaction, Enterprise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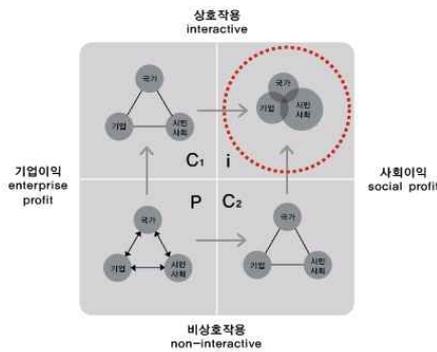
## 1. 서론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편의 시설물 디자인을 넘어 시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시민의 문화를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시내의 공공디자인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거버넌스의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업참여형 공공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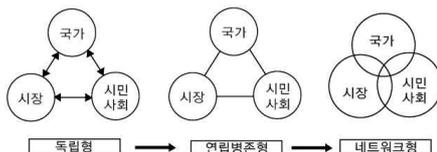
## 2. 문화거버넌스(Culture Governance)와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

최근 기업참여 형태의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문화를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선진국 프랑스 파리의 공영 자전거 벨리브(Velib)가 대표적인 예이다. 파리는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고객인 시민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뒤따라 서울시에서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이 '문화 거버넌스의 사회적 이슈'임을 제시한다.

[그림 1]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의 진화과정과 이상향



[그림 2] 거버넌스로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모형 (출처: 김석준, New Governance and Cyber Governance, 2000)



거버넌스란 일반적으로 협업을 뜻하는 용어로 정부가 문화행정을 실시함에 있어 여타의 주체와 협력적-공동 생산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국가-시장-시민 사회라는 전통적인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디자인 정책으로 인해 도시의 창조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문화 거버넌스의 발전 양상은 정부-시민-기업의 세 가지 주체들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시민영역의 지위와 역할을 소외시키는 불완전한 구조로 성장하는 현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도 많은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 3.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기업 참여형 사례연구와 발전 방향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실행된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모은 후 서울시의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연구에 적합한 다섯 가지 사례를 선별하였다. 그 다섯 가지 사례는 현대카드의 아트쉘터(Art Shelter), SKT Design Street Week & T 문화행사의 '주차금지 표지판' 프로젝트, 두산중공업의 아트펜스 '우제류를 위하여', KT의 공중전화 부스, NHN의 '그린원도우' 벤치이다.

[그림 3] 서울시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례 (왼쪽부터: 현대카드 아트쉘터, 두산중공업 '우제류를 위하여', SKT 주차금지 표지판 프로젝트, NHN 그린원도우벤치, KT공중전화 부스)



위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서울대학교 소속 시각디자인 전문가 3명, 기업디자인 전문가 2명의 총 5명이 90분간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공익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 방향의 토론 주제를 선정 후 결과를 분석한 도표를 제시한다.

- 기업이 시민과 얼마나 적극적 방법으로 소통하였는가
- 기업이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얼마나 시민에게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접근 하였는가

그림 4는 각 기업의 주체 간 상호작용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기업과 각 주체간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포지셔닝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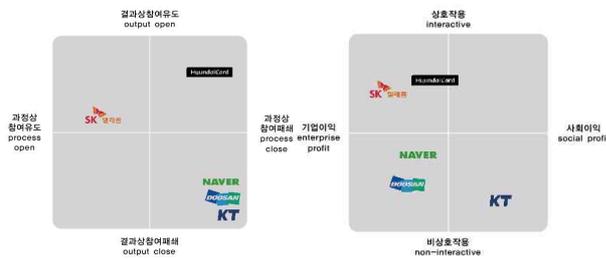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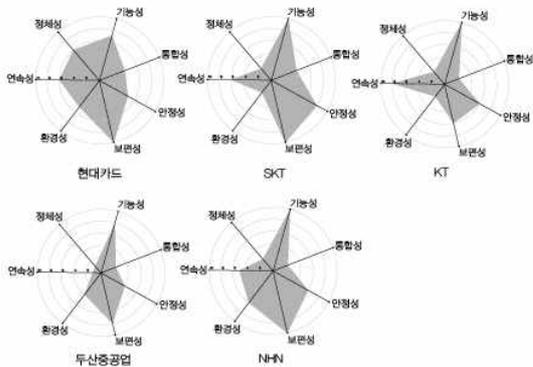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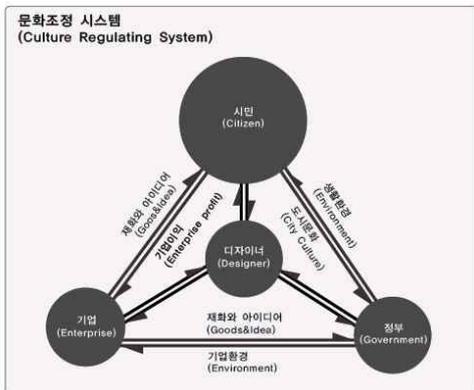
그림 5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능성과 보편성을 반영하는가’의 항목에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에 ‘도시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인가’의 항목에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서울시 공공시설물 평가기준에 따른 다섯 가지 시설물의 특성



본 연구의 문화적 배경인 문화거버넌스와 서울시 사례연구, FGD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바람직한 기업 참여형 공공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공공디자인의 기업, 정부, 디자이너, 시민 거버넌스 상호작용 모델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공공디자인 참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그 속성상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장에서 살펴본 이상적인 방향의 공공디자인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FGD 분석 결과 서울

시의 기업참여형 공공디자인은 아직 소극적인 형태이며, 그것은 상호작용성 분석과 시설물의 특성 평가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공공디자인 참여에 있어 지나치게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의 요구와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문화조정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반영자인 디자이너는 시민, 정부, 기업 이 세 가지 주체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활 환경을 관찰하고, 한정된 재화로 시민이 주체가 된 최고 가치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도시의 공공디자인은 시민, 자체체로 대표되는 정부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 연계 아래 시민과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시민이 도시 환경의 주체자로서 공공디자인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디자이너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이며 보다 시민을 배려하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아래 도시가 가진 고유문화를 자유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은 마케팅 수단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에 참여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기업참여형 공공디자인 사례는 소극적이거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보다 더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이 적용되려면 정부는 기업의 재화와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문화 조정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행정적 기준 및 시민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참여형 디자인 적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 결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공익의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공공디자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 디자이너, 주체인 시민의 각각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주도 형태 공공디자인의 확실성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제 15권 제2호, 오승호, 공공디자인 사례연구를 통한 문화시대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9
- 정봉금,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김성보, 공공디자인 환경의 효율적 제고방안: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정성윤, 공공미술에서 미디어아트의 상호작용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Bang. H.P., Multi Culture Governance:Governing Self-Reflexive Modernity, Public Administration, Volume 82, Number 1, 2004
- 서울디자인재단, www.designseoul.or.kr
- 서울특별시 디자인 총괄본부 www.design.seoul.go.kr